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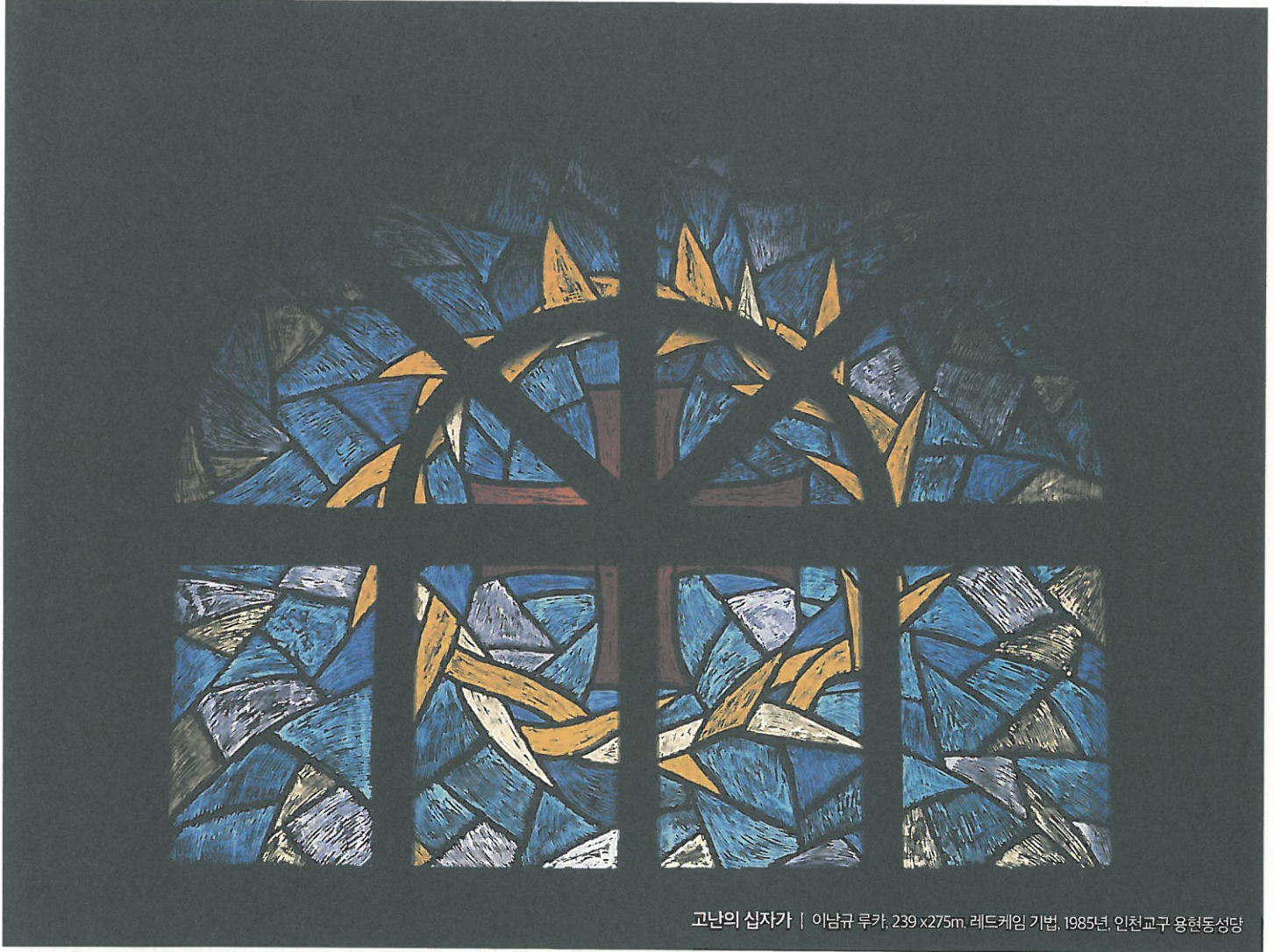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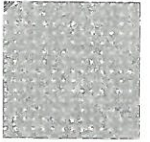
시온 주보

제2454호 2023년 7월 2일(가해)

연중 제13주일(교황 주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카카오톡 채널 https://pf.kakao.com/_xhGxjBxb | 인스타그램 @seoul_jubo | 유튜브 @catholictube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고난의 십자가 | 이남규 루카, 239 x 275m, 레드케임 기법, 1985년, 인천교구 용현동성당

입당송 | 시편 47(46), 2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제1독서 | 2열왕 4,8-11.14-16L

화답송 | 시편 89(88), 2-3.16-17.18-19(© 2ㄱ)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건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 정녕 당신은 그들 힘의 영광, 당신 호의로 저희 뿔을 들어 올리

시나이다. 저희 방패는 주님의 것, 저희 임금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것이옵니다. ◎

제2독서 | 로마 6,3-4.8-11

복음환호송 | 1베드 2,9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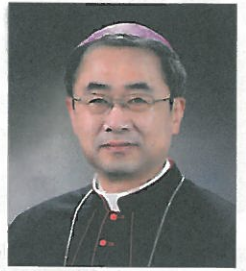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

복음 | 마태 10,37-42

영성체송 | 시편 103(102), 1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손희송 베네딕토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사는 사람입니다. 밭은 땅을 딛고 있지만, 머리는 하늘을 향하는 '하늘의 시민'(골리 3,20)입니다. 하늘의 시민은 사도 바오로의 권고대로 세상과는 대조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무슨 일이든 투덜거리거나 따지지 말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비뚤어지고 뒤틀린 이 세대에서 허물없는 사람, 순결한 사람, 하느님의 흠 없는 자녀가 되어, 이 세상에서 별처럼 빛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골리 2,14-15)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례성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일치하여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줍니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로마 6,4 | 제2독서)

세례를 통해 이루어지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의 전환은 하느님 은총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동시에 과제도 안겨 줍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새사람으로 태어났으니 계속 새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 새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은총의 선물인 '새로움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계속 밝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이란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사를 통해 전해지는 그분의 손길에 의탁하고, 그분을 닮도록 부지런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세례를 주고 복음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마태 28,19-20) 제자들은 스승의 명에 따라 만방에 가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애지중지하는 가족도 뒤로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까지도 포기할 각오를 하라고 하십니다.(마태 10,37-42 | 복음) 인간적으로 보면 매우 힘들고 험한 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서는 필요한 때에 제자들을 돕는 이들을 보내주시는데, 그들에게는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사 예언자를 도와주었던 여인이 큰 축복을 받았듯이(제1독서), 예수님의 제자를 예언자로, 의인으로 받아들여 도움을 주는 이들에게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의 사명은 교회를 통해 계속됩니다. 사제와 평신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확신 있게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힘으로 인간이 거룩하게 되고 현세 질서가 개선되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이런 교회의 복음 선포 사명을 선두에서 지휘하는 분이 교황님이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시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면 좋겠습니다.



“제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마태 10,39)

예수님은 저를 위해 제 생명을 희생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해 주십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뒤로 하고 신앙과 사명을 위해 희생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저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편안함과 안정함에서 벗어나 도전과 위험을 택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스테인드글라스를 바라보며 제 삶에서 주님의 가치, 제 가치를 찾기 위한 길은 다르지 않음을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작품 설명

박정석 미카엘 | 루크글라스



말씀의
이삭

신앙의 놀이터

제 인생의 정말 많은 기억이 저를 웃게 하지만, 그중에서도 ‘참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때는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던 어린 시절입니다. 그 무렵 저는 평일에는 국제 학교에 다니며 교육을 받고, 주일이 되면 한 명도 빠짐없이 다른 가족 구성원들 모두와 함께 한인 성당으로 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필리핀에서 처음 살기 시작한 다섯 살 때는 한인 신자 공동체에 성당 건물이 따로 없어서 산 안토니오라는 현지 성당의 건물을 빌려 미사를 드렸습니다. 어찌 보면 얽혀사는 처지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린 저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친구들과 그저 뛰어다니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곳이었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 우리 공동체는 우리만의 성당 건물을 짓게 되었습니다. 크지 않던 우리 성당은 단 한 대 9시 미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 덕분에 우리는 모두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사뿐만 아니라 각종 분당 행사에도 모든 가족이 참여할 수 있어서 명절을 방불케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또래 친구들을 비롯해 언니 오빠들과 노느라 정말 정신없이 웃고 뛰어노는 성당 생활을 했습니다. 새하얀 성전과 교리실 그리고 성당 마당은 우리의 놀이터였고 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생활을 뒤로하고 한국에 왔을 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작 중학교 2학년이었지만 진로가 아닌 ‘입시’에 대해 고민해야 했고, 심지어 학교에서는 문화 부적응으로 1년 내내 왕따를 당해야 했습니다. 힘든 마음에 성당에 찾아갔지만, 햇빛 하나 들어오기 힘든 붉은 벽돌의 엄숙한 성당은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6년 동안 냉담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대학교에 진학하고 우연히 사당동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는데, 마침 주



김유정 발레리아 | 노래하는 배우

보에 게시된 성가대 단원 모집 홍보글에 이끌려 청년 단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4년째 사당동성당에 저의 마음을 둘 수 있었던 원동력은 다름 아닌 유년 시절 경험했던 필리핀 한인 성당에서의 기억입니다. 하느님의 품 안에서 순수하게 웃고 뛰어놀던 기억과 온 공동체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가족이 되어주는 그 기분. 좋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그 발걸음과 사람들 안에서 발견하는 하느님의 현존. 그렇게 필리핀 거주 이후 항상 자리 잡고 있었던 ‘기쁜 신앙생활’에 대한 갈망이 다시 저를 하느님의 품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감사함’조차도 의무감으로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하느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거운가?’, ‘가끔은 시험장에, 때로는 심판대에 가는 기분으로 하느님을 만나러 가고 있진 않은가?’ 어린 시절의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지금의 나도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놀이터에, 하느님의 품에 달려갈 수만 있다면 우린 매주 그저 분당 건물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로 기쁘게 가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림 | 송현철 안토니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가 함께하는 국내의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의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가톨릭사랑평화의집

동자동 쪽방촌, 우리의 이웃!



서울역 11번 출구로 나와 남산 방향으로 올라오면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이 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쪽방촌 사람들은 도시락을 받기 위해 긴 줄을 섭니다. 줄이 길어지면 주변 다른 건물에서는 냉소적인 시선과 함께 때로는 혐오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따뜻한 도시락도 중요하지만, 사실 쪽방촌 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벗입니다. 말벗을 통해 외롭고 고단한 삶에 위로도 얻고, 혹시 모를 고독사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55세의 젊은 형제님이 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나 외로웠는데, 신부님이 찾아와 주어 고마웠다.”라던 형제님의 말을 기억하며, 그 삶의 마지막에 작은 위로가 되었을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런 분 중에 원기(가명, 67세) 씨도 있습니다. 원기 씨는 불이 꺼진 쪽방에서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도시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하고 물으니, “신부님, 뭐 밥인가요. 내가 죽다 살았는데...”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원기 씨는 우리 사회의 아프고 슬픈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형제보육원에서 자랐고, 삼청교육대까지 다녀온 후 그의 곁에 가족은 없었습니다. 매일 의미 없이 살아가던 중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생각에 자살을 시도했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후유증 탓에 목으로 밥을 넘기는 게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원기 씨와 더 많은 대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방문 횟수가 늘어날수록 대화의 주제도 많아지고 원기 씨 얼굴에 미소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쪽방에서 나와 외출도 하고 싶

다고 합니다. 외로웠던 원기 씨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사람들과 나누는 소박한 일상이었습니다.

쪽방촌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쪽방 공간 구조상 공기 순환도 되지 않고 빨래도 쉽지 않기에 낡고 냄새나는 침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절에 맞지 않게 한여름에는 더러운 솜이불을 덮고, 한겨울에도 얇은 천 조각을 매트 삼아 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나이 들고 아프신 분들이 많은 쪽방촌 사람에게 계절에 맞는 깨끗한 침구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여의찮습니다.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은 정부 지원 없이 온전히 후원금으로 운영됩니다. 주 3회, 하루 250개의 도시락을 준비하다 보니 높은 물가에 재료비도 만만치 않고, 조리엔 필요한 주방 비품을 구비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워낙 낡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에는 위험한 건물 입구와 화장실 등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통해 단 하루라도 이 분들이 조금은 깨끗한 환경에서 먹고 자는 소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다면 이웃 사랑의 기적이 쪽방촌에서 새롭게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을 차가운 무관심으로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의 장벽을 넘어 쪽방촌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여긴다면, 작은 도움의 손길은 오늘이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고독사에 취약한 쪽방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가톨릭사랑평화의집
인스타그램



가톨릭사랑평화의집
홈페이지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004-429455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2023년 7월 1일~8월 4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가톨릭사랑평화의집'을 위해 씁니다.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 - '사랑의 손길'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소득공제 받으시는 분의 이름으로 입금해 주시기 바라며, 기부 내역 누락 방지를 위해 **무통장 입금 후 바로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해 주세요.**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2): 예수님이 옳으셨다!!



최현순 데레사 | 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 교수

혹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청년들에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 치유 기적, 사람들을 대하시던 태도 등등은 청년들에게도 분명 매력적입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예수님의 지혜, 사람에 대해 가지셨던 동감과 사랑에 매료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비참한 죽음입니다. 지금처럼 청년, 장년, 노년 할 것 없이 삶의 고단함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그분의 한없이 무력하고 비참하기만 한 죽음은 “예수님처럼 살아볼래?”라는 초대 앞에 아마도 사람들을 망설이게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지셨던 것은 좋은데, 그래서 뭐란 말인가요? 그분은 결국 인생의 실패자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위로와 평화,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단순히 “내게 이러저러한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쩌면 나를 위한 ‘행복 자판기’로 여겨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에는 구원받고 행복한 것도 당연히 포함되지만, 내가 정말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그분이 살았던 삶의 방식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분처럼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돌보고, 필요하다면 내 것을 내어주고 좀 더 나아간다면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겠지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를 보고 또 누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고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의 ‘인간적인 끝’이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신났

던 발걸음은 잠시 멈칫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정말 끝이라면요. 부활은 이것에 대한 답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하느님은 그분이 옳았다는 것, 그분의 생각, 삶의 방식, 죽음에 이르도록 충실하게 지향했던 것, 그것들이 모두 참으로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근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한다는 가르침, 지상의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더 귀한 가치가 있다는 것, 우리의 인간적 판단을 넘어 끊임없이 하느님의 판단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 그래서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알아보고 애쓰고 그 뜻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며, 그것에 나를 필요로 하신다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등등, 이런 예수님 삶의 방식이 옳았다는 것의 확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의 의미는 ‘인간적인 끝남’ 너머로 우리의 시선을 던져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거지요. 그리고 그 정말 ‘끝날 때’란 바로 하느님만이 개입하실 수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도 된다는, 그것이 옳다는 것의 보증입니다. 그래서 발터 카스퍼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은 단순히 자연법칙을 깬 이질적이고 단편적인 기적 사건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하느님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한 답이라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신앙은 하느님과 예수님에 대한 신앙에 부록 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신앙의 집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의 수난과 부활 사건에 기초합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요, 토대입니다.

퍼즐 풀이로서의 과학, 그 두 번째 이야기



조동원 안토니오 신부 | 가톨릭대학교성신교정 교수

퍼즐 풀이처럼 과학은 정해진 규칙과 확실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규칙과 답이 있다면 그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을까 할 수 있지만, 과학자의 작업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학이라는 도구를 잘 다룰 줄 알아야 하고 그것을 실제 자연 현상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직관과 통찰력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실험 모델을 세우는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실험 데이터를 치밀하고도 정직하게 분석해내는 고도의 인내심이 요구됩니다. 과학자는 이 모두를, 타고난 ‘과학자로서의 적성’과 더불어 오랜 시간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게 됩니다.

하나의 퍼즐을 능숙하게 풀 줄 아는 아이가 다른 퍼즐을 찾아 도전하는 것처럼, 과학자도 ‘과학자로서’ 한 가지 문제를 능숙하게 풀게 되면 다른 문제들을 찾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과학이라는 퍼즐 풀이의 마스터가 되어갑니다.

이 마스터는 보통 동료들의 인정을 받기 마련이지만, 종종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의 존재를 거의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퍼즐 풀이가 있다는 사실도 잘 모르는데, 왜냐하면 그 퍼즐은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생소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몇몇 예외가 있지만, 그 마스터는 대중의 인정이나 명성을 크게 갈망하지 않는 편입니다. 보통 그는 퍼즐 풀이 자체에서 즐거움과 보람을 찾습니다. 어려운 퍼즐을 풀어낸 ‘짜릿함’은 과학자에게 있어 가장 큰 기쁨의 원천입니다. 같은 과학자 그룹에 속해 있는 동료들의 인정과 찬사는 일종의 덤이지요.

하지만 때로 이 퍼즐 풀이의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노벨상과 같은 큰 상을 받을 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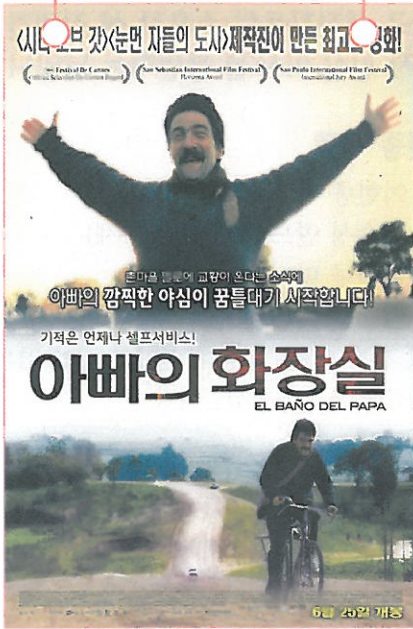
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과학자가 풀어낸 퍼즐의 답이 현실에서 실제적인 그 무엇으로 구현될 때 대중은 경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연 현상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 시작된 과학이라는 퍼즐 풀이는 어느 순간 현실적인 기술과 결합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인류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학을 알고 과학기술의 열매를 맛본 인류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지요. 그 과정에서 과학자들은 커다란 유명세와 힘을 갖게 되었고, 과학이란 이름은 대체 불가한 권위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했듯 과학자는 본래 명예나 영향력이 아니라 퍼즐 풀이에서 즐거움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러한 초연함이 그로 하여금 퍼즐 풀이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술과 결합된 과학의 힘에 매료된 사람들은 이제 과학자에게 명성과 힘을 자발적으로 가져다 바칠 뿐 아니라, 온갖 지식과 가르침을 그에게 청하기 시작합니다.

과학이라는, 그중에도 자신이 전공한 지극히 좁은 분야의 퍼즐 풀이에만 익숙한 이 전문가는 처음엔 이러한 대중의 요구 앞에 당황해합니다. 그러다 결국 자신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원래의 ‘초연한’ 과학자로 남아 정직하게 퍼즐 풀이에만 전념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을 찬양하는 이들이 만들어낸 환상을 마치 진짜인 양 받아들여 과학의 이름으로 과학의 영역을 넘는 온갖 짓을 말하고 ‘가르침’을 펼 것인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첫 번째 길을 택합니다. 하지만 몇몇은 두 번째 길로 나아가는데, 바로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과학과 신앙의 갈등이라 일컫는 잘못된 방식의 ‘충돌’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09년 감독_세자르 살론

지난 2014년 여름에 있었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특히 권위 대신 겸손과 포용의 자세를 앞세운 모습을 방한 중에도 고스란히 보인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행보는 시대의 징표로서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 성찰하도록 이끌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황님의 한국 방문은 교회와 우리 사회의 일부 어두운 면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황님의 방한 기간 동안 교황님의 행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언론들은 '교황 특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경제적인 맥락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교황 관련 서적으로 가득했던 대형 서점에는 특수를 노린 듯 급히 출간된 것처럼 보이는 교황 관련 서적들이 일부 눈에 띄었습니다. 방한 이후에는 교세 확장이나 교회의 이미지 제고와 같은 차원에서 교황 방한의 의미를 좁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같이 교황님의 한국 방문을 세속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았던 일부 시선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글이 있습니다. 한현수



영화 '아빠의 화장실'

여백의 묵

시인의 '여백의 묵'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 첫날/ 가능한 큰 글씨의 친필서명을 받기 위해/ 주교단은 큰 종이를 교황에게 내밀었다// 교황은 돋보기로 봐야 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francisco라고 썼다// 모두 함께 웃었다/ 주교들은 깨알 같은 이름 때문에 웃었고/ 교황은 여백이 커서 웃었다.

우루과이에서 만들어진 영화 <아빠의 화장실>은 한현수 시인이 언급한 '여백의 묵'을 향한 고민을 안겨주는 작품입니다. 1988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우루과이 순방길에 일어났던 실제 사건을 소재로 삼은 이 영화는, 우루과이와 브라질 국경 사이에 놓인 작은 시골 마을 '멜로'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방문 계획이 알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소식에 마을사람들은 교황님을 따라 방문하게 될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사를 해서 돈을 벌 생각에 들뜬다. 이때 주인공 비토(자르 트론코소 분)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삼는 '유료 화장실'을 만들어 돈을 벌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비토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밀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해왔지만, 걸핏하면 국경을 지키는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행당동성당 부주임

군인들에게 밀수품을 뺏기는 통에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교황님의 마을 방문은 놓칠 수 없는 일확천금의 기회이자 가족들을 궁핍한 일상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다는 희망이 됩니다.

주인공 비토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이 교황 방문에 맞추어 품었던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허황된 꿈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히 비토와 마을 사람들이 무리한 욕심을 부린 결과로 치부할 수만은 없습니다. 영화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교황님의 방문을 일확천금의 기회로 여기게 만들었는지를 물으며, 영화를 마주한 관객들이 영화 속 등장인물들과 함께 '하얀 여백'의 가치에 더욱 몰두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방한 때 우리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교황 주일을 맞으며, 9년 전의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교황님의 방문과 방문중의 행보에 열광하였는지를 진중하게 되물어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7월 2일)은 '교황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인사발령

성명	전임지	새임지
서정훈 신부	안식년	면직

7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성체성사의 삶'

가톨릭 신자들이, 인간관계를 깊이 변화시키고 하느님과 모든 형제자매와의 만남을 열어주는 성체성사의 거행을 삶의 중심으로 삼도록 기도합니다.

7월 5일(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를 봉헌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3일 이현종 야고보 신부(28세)
- 1950년 7월 5일 이순성 안드레아 신부(55세)
- 1950년 7월 7일 이여구 마티아 신부(53세)
- 1980년 7월 4일 김재문 미카엘 신부(26세)
- *1950년에 선종하신 신부님들은 근현대 신앙의 증인 81위에 속하는 분들로 한국전쟁 중 순교하셨습니다.

교구청 알림

가톨릭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76-8405
홍성남 신부(소장)의 영성심리특강 및 미사 때, 곳: 7월8일(토) 15시부터, 가톨릭회관 7층

7월 생명을 위한 월레미사

때, 곳: 7월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레미사

때: 7월3일(월) 10시30분~11시30분
곳: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서울대교구 법원 공시

아래 공시되신 분은 7월17일(월)까지 교구 법원으로 연락바랍니다 관련된 혼인에 대해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 성명: 김현숙 마리아
문의: 02)727-2130, 2131(주말, 공휴일 휴무)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레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곳: 7월6일(목) 14시~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송영호 국장 신부, 김윤상 차장 신부(해외선교봉사국) / 문의: 02)727-2407, 2409

'슬픔 속 희망찾기' 7월 유가족 미사 안내

때, 곳: 7월15일 매월 세번째(토) 10시(목주기도), 10시 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집전: 차바우나 신부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내 마음의 북녘 본당 갖기' 미사) / 문의: 02)727-2420
때, 곳: 1375차 미사 7월4일(화) 19시, 명동대성당
이번주 기억할본당: 함흥교구 흥남 본당, 함흥 본당
미사 후, 한반도 평화와 북녘본당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합니다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심정애 개인전: 1전시실
한국 레지오 마리아에 도입 70주년 기념전시회: 2, 3전시실
전시일정: 6월28일(수)~7월6일(목)

2024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대학수료자, 수도자, 만학도(1989년 2월28일 이전 출생)
원서접수: 9월11일(월)~15일(금) 인터넷 접수
면접평가: 11월3일(금) / 문의: 02)740-9704, 9705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순교자현양 신심미사와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안내

문의: 02)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1) 순교자현양 신심미사(325회)
때: 매월 첫째주(화) 7월4일 · 8월1일 오전 10시
곳: 절두산 순교성지
2) 하루일정 전국성지순례
때: 7월15일(토), 16일(일), 25일(화)
곳: 포천성당, 이벽진묘, 의정부주교좌성당, 양주관아
신청: 7월3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4만5천원 / 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사목국 영성심리상담교육원

1) 가톨릭영성심리 치유와 봉사 기본과정 수강생 모집
대상: 만 20세 이상, 고졸이상 가톨릭 신자
교육기간: 9월~2024년 6월 / 모집기간: 6월19일~7월31일
신청: 홈페이지(http://seoultpc.catholic.or.kr) - 교육신청
문의: 02)727-2126(tpc@seoul.catholic.kr) 상세내용 홈페이지 참조
2) 서울가톨릭상담센터
심리정서(불안, 우울, 성격), 대인관계 어려움, 직장 및 학교 부적응, 가족관계, 진로상담
곳: 서울대교구청 별관 가톨릭상담센터 B106호(명동), 노동사목회관(보문역), 노원성당, 삼성산성당, 천호동성당, 화곡본동성당
문의(예약): 02)727-2139(월~금 10시~17시)
전화상담: 02)727-2137(월~금 10시~17시)

가톨릭 시니어 후원회 7월 월레미사

성가와 함께하는 찬양 미사
때, 곳: 7월4일(화) 오후 2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미사 주례: 노인사목팀 담당사제
문의: 02)727-2385, 6 노인사목팀

2023년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하반기 교회음악가자격증 과정 모집

서울대교구장 인준의 전문(중급) 교회음악가 자격증 수여
원서접수: 2023년 7월10일(월)~21일(금)
접수방법: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대상: 천주교 세례를 받은 신자,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www.casm.co.kr) 성음악위원회

개강일정	2023년 9월 개강
하반기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슨, 토요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학기운영	3학기 과정 / 직장인을 위한 주중 저녁 / 주말반 운영
입시일정	원서접수 → 면접전형(실기) → 합격자발표 → 등록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서울) 사제식당 직원 모집

분야: 영양팀(계약직) 0명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 채용시까지 접수
문의: 02)740-9707, 8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직원 모집

대상: 신자로 성실하신 분, 사무원 1명(계약직)
업무: 일반 사무, 회계 경리, 후원 관리, 도서 보급, 행사 보조 등 / 서류: 입사지원서(fatimaseoul.kr-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채용시까지 접수 / 이메일(seoulfatima@gmail.com) 문의

한국틴스타 직원 모집

분야: 사무 및 경리 담당 / 문의: 02)727-2358
대상: 세례받은 신자로 관련 전공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한국틴스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 채용시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영성센터 사무동 401호 한국틴스타) 및 이메일(kteenstar@hanmail.net)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 139나길 16-8)	010-2034-0042 이효준 신부
성가소비녀회	매월 네번째(일) / 수시	총원 성소국(길음동)	010-8274-5801 정 예수아 수녀
천주교서울구제선교회	수시	선교회(한남동)	010-2749-4596, 02)749-4596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평화의 모후 청년 쉼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글라셋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때, 곳: 7월9일(일) 11시~15시, 글라셋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회비 없음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노틀담 비대면 기도모임 '청년, 전례를 살다'

주제: 전례와 기도 / 대상: 39세 이하 남녀 미혼 청년
 때: 7월14일(금) 20시~21시 / 12월까지 둘째·넷째주(금)
 Zoom(비대면) / 문의(접수): 010-3930-6730 노틀담 수녀회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 피정(꽃동네 기도회)

대상: 중학생 이상 미혼 남녀 / 회비: 7만원
 때, 곳: 8월4일(금) 13시~6일(일) 16시,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문의: 010-5490-5345(myungkkot@daum.net)

성모 승천 전례 피정

때: 8월13일(일) 16시30분~15일(화) 13시30분
 곳: 왜관 피정의 집(주최) / 회비: 25만원
 계좌: 농협 301-0087-0776-61 베네딕도수도원
 (접수 후 입금) /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역삼동성당 기도회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0분(미사 19시), B1 경환당
 (주차 가능) / 문의: 010-4667-3792 서 카타리나

7월7일	김인성 신부	7월14일	조성풍 신부
------	--------	-------	--------

지리산 피아골 피정 / 문의: 010-3712-8119

1박2일	7월21일~22일, 8월25일~26일
2박3일	8월4일(금)~6일(일)

삼성산 피정의 집 성령기도회 및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화요일 매주(화) 21시30분~다음날 4시(9월5일까지 성령기도회 화요일철야기도회 중에 은사세미나를 합니다)
 치유 대피정 7월8일(토) 12시30분~17시30분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117차 7월21일(금)~29일(토) /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18차 8월11일(금)~19일(토)
 제119차 9월8일(금)~16일(토)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성경완독 7월7일(금)~15일(토), 8월11일(금)~19일(토)
 효소단식 7월20일(목)~23일(일), 8월3일(목)~6일(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이사야서 I 7월28일(금)~30일(일)

한국의방선교(해외선교) 수녀회 젊은이땅끝기도모임

대상: 해외선교와 수도생활에 관심있는 미혼 자매
 문의: 010-9353-1773 김 토마스 수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세~40세 청년 신자
 때, 곳: 7월9일(일) 14시~17시, 평신도선교사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번 출구) / 문의: 010-3817-0567

정전 70주년 2023년 DMZ 평화의 길 도보순례

대상: 초6 이상 누구나(80명 선착순 접수) / 회비: 26만원
 때, 곳: 2차 7월26일(수)~31일(월) 5박6일, 파주·연천·철원·화천·양구·고성 / 문의(접수): 031)941-2766(www.pu2046.kr)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때, 곳: 매일 둘째주(토) 7월8일 14시~18시,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신앙선조는 '영혼이 힘들'을 어떻게 든든히 하였는가?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계절마다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7월22일~24일·8월19일~21일·8월27일~29일·9월1일~3일·9월5일~7일, 여름특별 피정(우도) 7월28일~30일·8월1일~3일·8월5일~8일·8월11일~14일 / 문의(접수): 02)773-1455, 064)796-4182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7월21일~23일, 8월26일~28일
여름특별 피정 (우도 자유 일정 포함)	7월29일~31일, 8월4일~6일, 8월9일~12일
성지순례 (추라도성지 포함)	9월10일~13일, 10월7일~10일, 10월15일~18일, 11월4일~7일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원주교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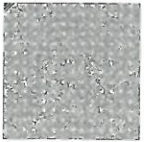
문의(접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7월14일(금)~16일(일) 정남진 신부(원주교구)
 8월18일(금)~20일(일) 민병식 신부(서울대교구)
 9월15일(금)~17일(일) 배영호 신부(수원교구)
 10월20일(금)~22일(일) 전현호 신부(대구대교구)
 11월17일(금)~19일(일) 김대우 신부(수원교구)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8월2일(수)~3일(목), 9월16일(토)~17일(일)
 3박4일 7월13일(목)~16일(일), 7월20일(목)~23일(일)
 8박9일 8월7일(월)~15일(화), 9월4일(월)~12일(화)
 40일 10월4일(수)~11월12일(일)
 2박3일 8월4일~6일, 9월22일~24일
 수원교구 영성교육원 / 강사: 권민자 수녀
 문의: 031)321-9054, 010-4154-0885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곳: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3박4일) / 문의: 010-3645-9028
 회비: 75만원·115만원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7월7일~10일·7월28일~31일·8월4일~7일·8월18일~21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 010-9363-7784 글라라

교육

미사 전례를 위한 오르간 레슨

문의: 010-4964-5274 제14동작지구(혹석동)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02)324-0852

학교 밖 청소년 및 학습멘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 02)382-5652 서울시교육청등롱대안교육기관 청소년문화공간JU역촌동

학교 밖 청소년	14세~24세 / 학업(검정고시·수능), 사진, 일렉기타, 스페인어, 유리공예, 영상편집 등
자원봉사자	검정고시 및 수능 학습지도 가능한 신분 / 주 1, 2회(2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음악아카데미

교육과정: 수시 모집
 회비: 16만원(8주 기준) / 문의(접수): 해당 과목 강사

국악기-대금·소금·단소	(목) 10시30분~12시30분, 15시~17시, 18시~20시 / 010-7930-2074
생활음악기-펜플룻·통기타·우쿨렐레·오카리나·아이리시타하울	
재즈피아노	(목) 19시~21시, (금) 10시~12시 / 010-7244-1312

에파타 성당 수어교실

문의: 02)995-7394(scdeaf01@hanmail.net) 에파타 성당 사무실 / 회비: 12만5천원(교재비 5천원 포함)

	에파타성당	명동대성당 범우관 409호
7월5일(수)	기초반 13시30분~15시	
7월6일(목)	기초반·고급회화반·가톨릭수어 20시~21시30분	기초반 19시~20시50분
7월7일(금)		기초반 19시~20시50분

마리아학교 수강자 모집(하반기)

문의(접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대면반 9월5일~2024년 2월18일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회비: 16만원
 계좌: 우리 1006-301-276411 티없으신성심
 Zoom반 9월7일~2024년 2월18일 매주(목) 20시~22시
 청년반 매월 넷째주(일) 10시~16시(10회), 가톨릭회관 311호 / 매월 접수 가능

성바오로수도회 말씀학교 무료 강좌

때: 10시~12시30분(미사 포함) / 매주 수업
 매주(화) 예언서 / 문의: 010-9333-6260 양은철 신부
 개강: 9월5일, 성바오로 북카페 레벤(논현동, 전철 7호선 논현역 1번 출구 180미터) / 총 45주
 매주(목) 마르코(예수님 수의와 함께)
 개강: 9월7일, 성바오로수도회(강북구 송중동)
 문의: 010-6287-9753 김길수 수사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피나음악원(주최, 신촌)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곳: 8월31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영성센터 A201호 / 010-9590-4560, 010-5236-5493

1년에 읽는 구약성경(비대면 Zoom)
때: 9월부터 1년간 (월) 오전 10시~12시
회비: 3개월 12만원(총 48만원) / 문의: 010-4598-6912
지도: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주최)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설립 10주년 이벤트
연중 다양한 이벤트(홈페이지 참조)
회비: 일반·첫걸음 2만5천원, 단과 1만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 문의: 02)753-8765
주제: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 김영훈 신부(서울대교구 사목국)
때, 곳: 7월2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7층

우리의 모든 감정을 요리하는 '감정식당'
주제: 이서원 교수의 슬기로운 감정생활
때: 7월11일(화)·18일(화)·25일(화) 14시~16시
곳: 성마로수도회 본원 바오로센터(주최)
회비: 10만원 / 문의(접수): 010-3251-8400

203차 한국티스타 교사양성워크숍
대상: 가톨릭 인격적 성교육에 관심있는 분
때: 7월31일(일)~8월4일(금) 9시30분~16시30분
곳: 명동 영성센터 B동 302호 / 회비: 18만원
신청방법: www.teenstar.or.kr / 문의: 02)727-2359

양업고등학교 대안 좋은학교 연수 / 문의: 043)260-5076
대상: '좋은학교'에 관심있는 교사·학부모
때, 곳: 7월22일(토)~23일(일) 1박2일, 학교
회비: 1인당 8만원(입학전형 안내 겸함)
접수: 7월11일(화) 오전 10시, 양업고 홈페이지 팝업창

모집

예수성심 전교수도회 재속(친교회) 회원 모집
대상: 만 65세 이하 교우 / 문의: 010-8735-4889

장애아동가족합창단원 모집
음악치유로 부모와 함께하는 가족합창단에 참여하실분을 기다립니다 / 문의: 010-4252-1165
윤태원 교수(가톨릭성음악클레식기타회)

한누리아동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곳: 전철 3호선 독립문역 / 분야: 초등·중등영어, 요리교실·미술교실, 방학점심 급식조리(요일선택 가능)
문의: 02)735-3633(hannuricenter@hanmail.net)

새남터성당 교중미사 성가단원 모집
순수 봉사 / 대상: 성가를 봉헌할 남녀 교우
연습: 매주(일) 11시, 교중미사 전후 1시간씩(10시~13시) / 문의: 010-9096-5184

명동대성당 무지카사크라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1986년 창단된 한국 최초의 소년합창단이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 대상: 8세~12세 가톨릭 신자 남아
문의: 010-8802-9003 자모회장

주교좌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성가단 단원 모집
모집 파트: 테너, 베이스 약간명
대상: 세례받은 신자(혹은 예비신자), 혼인미사 일정에 따른 성가단 활동에 지장이 없는 분, 만 26세 이하의 현재 성악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원)생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o.or.kr) 참조
문의: 02)774-1784 성음악봉사분과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클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7월8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성공콜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 문의: 02)929-2977
때: 7월7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 1층(전철 4호선 명동역)

성마로수도회 협력자 월례미사 / 문의: 02)548-3623
대상: 협력자 회원, 개인 누구나 참여 가능
때, 곳: 첫째주(토) 10시30분·15시, 북카페 레벤(논현)

군중후원회 월례미사·특강
때, 곳: 7월3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군중교구청, 왜고개성지 내) / 문의: 02)776-0457

은총의 갯세마니 성시간·미사초대
대상: 예수성심의 열정적 사랑체현, 성령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바라는 분 / 고백과 상담: 18시
때, 곳: 7월6일(목) 19시~21시, 프란치스코 회관(정동)
문의: 010-5782-1875 성 아놀드 안센 영성센터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성서인문학 강좌
대상: 후원회원, 성서인문학 강좌에 관심있는 분
때, 곳: 7월5일(수) 14시(미사)·15시(강좌),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강사: 김병수 신부
문의: 02)3673-2525 미사, 02)3673-2528 강좌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최영민 신부(예수회) / 문의(예약): 010-3173-2665

나루 상담센터
곳: 논현동 / 대상: 심리적,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분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요양센터 입소어르신(여성) 모집
운영: 까리마사수녀회 / 문의: 02)582-6004
장기요양등급(시설급여)소지 여성 어르신
단체명: 구립서초성심노인복지센터(요양)

꼬메스심리상담소 / 문의: 010-3201-0520
경험 많고, 실력과 신심을 모두 갖춘 전문상담사들이 여러분 마음에 평화를 찾아드립니다
상담방법: 전화, PC(Zoom), 대면 모두 가능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곳: 명동 / 홈페이지: www.jiscen.or.kr
전문심리상담: 개인심리치료, 가족심리치료(정서불안·우울·분노·소통과 관계의 어려움), 종합심리검사

바오로딸 북콘서트
유홍식 추기경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도서: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라자로 유홍식'
때, 곳: 7월22일(토) 16시, 명동성당 1898광장
문의(접수): 010-7286-7724 (문자) / 회비 없음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전문병원, 중독(노박·인터넷 게임 등) 중점 치료,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야간진료 (화) 18시~20시30분
곳: 고양시 일산 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 홈페이지: www.karf.co.kr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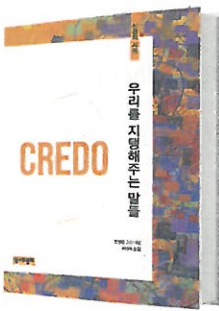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깃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불안, 우울, 공황장애, 부부, 진로,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골룸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1급) / 문의: 010-9146-7654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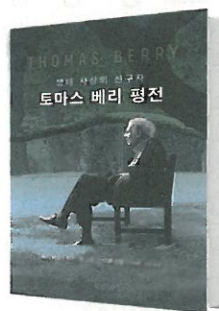
개인심리상담 및 사례별치료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아동, 청소년, 성인, 부부갈등, 우울증, ADHD, 공황장애, 보다 더 행복한 삶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교육	토닥토닥잘말거야 심리여행: 7월8일~8월5일 (토) 10시~12시(5회기) / 아트살롱 '시니어 미술과 마음케어' 강좌: 선착순 접수



신간
**우리를
지탱해주는 말들**

안셀름 그린 지음
성서와함께 | 228쪽 | 1만5천원
문의: 02)822-0125

“우리는 미사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신경을 외웁니다. 우리는 그 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나요? 혹시 반복해서 외다 보니, 그 말들이 입에 붙어 습관적으로 술술 외는 것은 아닌지요.” 저자는 신앙이 막연해 지지 않고 다시 새롭게 확고해지도록, 신경으로 다가가는 길을 안내한다.



신간
**생태 사상의 선구자
토마스 베리 평전**

메리 에벌린 터커, 존 그림, 앤드루 언절 지음
파스카 | 508쪽 | 2만5천원
문의: 02)762-1194

토마스 베리는 현대에 만연해 있는 자연으로부터의 소외를 탈피하여 친밀감과 책임감 있는 자연과의 관계로 옮겨갈 것을 추구하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생태 교육, 생태 영성, 생태 윤리, 지구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토마스 베리의 비전과 통찰에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신간
신부님, 질문있습니다
- 생명수호봉사자들 -

이동호 지음
기쁜소식 | 79쪽 | 1만원
문의: 02)727-2354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연구위원인 이동호 신부가 생명위원회에서 매 월 발행하는 웹진 <생명을 위하여>에 연재 중인 '생명에게 묻고 말씀에서 찾는 사람들의 내용'을 모아 엮어낸 책으로, 본당 신자들이 궁금해하는 '탄생, 성, 사랑, 혼인, 죽음, 동물' 등 생명과 관련 주제들에 대해 설명한다.



신간
구세사 산책

김명숙 지음
성서와함께 | 472쪽 | 2만5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창세기에서 여호수아기까지의 범위를 다룬다. 이 책에서 각각의 구원 사건들과 함께 구약시대의 배경이 되는 고대 근동의 사회, 문화, 당시 사람들의 삶과 그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과 신관, 계약 체결의 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한다.

한여인의 사랑 이야기 **여걸 강완숙 골롬바**

2023. 7. 5 (수) 오후 3시
서울 광종성당 포스트룸

연극

한여인의 사랑 이야기 **여걸 강완숙 골롬바**

7월 12일(수) 19시, 능곡성당 | 9월 6일(수) 20시, 혜화동성당
9월 13일(수) 17시, 남대문시장성당 | 9월 14일(목) 20시, 수유동성당

강완숙은 위로 신부님을 받들고 아래로 교우들과 연결하니, 곧고 굳고 바르고 반듯해서 강완숙을 사람에게 켜면 마치 종소리가 화답하는 것 같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사람을 당기면 마치 불이 장작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 신미진 백서

강완숙 골롬바의 일생을 다룬 연극 <여걸 강완숙 골롬바>가 여러 성당에서 공연된다. 삶이 외롭고 공허하며 갑갑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고백을 하던 한 여인이 천주교를 만나 '사람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하느님 나라, 사랑,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한 여인을 여걸로 변하게 만든 명쾌하고 신나는 예수님 사랑이 관객들의 신앙에도 단비가 되어줄 것이다. | 문의: 010-3373-1654



제2287(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회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박진호(사도요한)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 주 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박병훈 예로니모(예수회) 사제 첫미사

일시 : 7월 2일(주일) 11시 교중미사
※ 첫미사 후 전신자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 구역 활성화를 위해 여성구역회에서 날옥수수를 판매합니다.

일시 : 7월 1일(토) 오후 6시~2일(주일) 12시까지
가격 : 20개 15,000원

◎ 성모신심미사 : 7월 1일(토) 오전 10시

◎ 유아세례 : 7월 2일(주일) 오후 4시 30분

◎ 연령회 미사

일시 : 7월 4일(화) 오전 10시
매월 첫째 화요일 10시에 연령회(선종하신분들을 위한 미사) 미사를 봉헌하고, 미사 후 돌아가신 연령을 위해 연도를 바칩니다.

◎ 사목회의 : 7월 9일(주일) 12시

◎ 반디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7월 15일(토)~16일(주일)
장소 : 여주관광농원
회비 : 가정당 60,000원
문의 : 지파 교감 (010-8081-9812)

◎ 연회동성당 복사캠프

일시 : 7월 26일(수)~27일(목)
장소 : 용인 에버랜드
대상 : 연회동성당 복사단
문의 : 보좌신부 (010-3854-1317)

◎ 중고등부주일학교 여름캠프

일시 : 8월 4일(금)~6일(주일)
장소 : 여름치 캠프학교
대상 : 중등부 1학년 ~ 고등부 2학년
접수 : 신청서 혹은 인스타그램 DM
회비 : 80,000원
문의 : 사도요한 교감 (010-4041-3769)

◎ 초등부주일학교 여름 가족캠프

“너희는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요한 15.9)”
일시 : 8월 11일(금)~13일(주일) 2박 3일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유치부 ~ 6학년
회비 : 인당 50,000원
문의 : 이경화 묘사 교감 (010-2737-4091)



※ 주일학교 행사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 청년 여름캠프 (얼리버드 할인 안내)

일시 : 8월 25일(금)~27일(주일), 금요일 저녁 출발
장소 : 용문 청소년 수련원
대상 : 청년 누구나
접수 : QR코드 신청
회비 : 70,000원
* 얼리버드 접수시 60,000원 / 학부생 50,000원
얼리버드 접수기간 : 6월 18일(주일) ~ 7월 2일(주일)
문의 : 비아 회장 (010-2550-2375)



◎ 비대면 청년기도모임 <프레희(喜)>

대상 : 연회동 청년 누구나
일시 :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내용 : 7월 - 목주기도 (환희의 신비)
장소 : 온라인 / 기도모임 바로가기 QR
* 청년연합회 인스타그램(@youth.yh) 참고



◎ 오늘은 교황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3. 6. 25)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2년 책정율	2022년 납부율
2,064	773 (37.5%)	734 (35.6%)	43.8%	41.8%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	---------------

◎ 감사헌금 (6월 19일~25일)

진영문 일십만원	진현주 오만원
진현수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익 명 이십만원	정수진 칠만원
익 명 오만원	문지원 이백만원
성주혜 오만원	성승명 오만원
익 명 일십만원	이지만 오만원
송미섭 일십만원	익 명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민족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

교 무 금 7,322,000원
주일 헌금 5,236,700원
민족화해와일치를위한2차헌금 1,928,000원

입당	19 봉헌	216,513,211	성체	168,163,171	파견	23
----	-------	-------------	----	-------------	----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